

“알싸한 맛 일품”...신안 흑산도 홍어축제 막오른다



내달 4~5일 예리항서...독보적 남도 진미 평가
홍어 비빔밥·어선 해상 퍼레이드·경매 등 다채

레이드, 흑산홍어 시식회, 흑산홍어 깜
짝 경매, 삭힌 홍어 먹기 대회 등 관광객
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
양한 행사들로 꾸렸다.

또한 흑산홍어 판매관 및 홍보·
전시관, 특산물 판매장, 철
새전시관, 고래공원 관
람 등 가정의 달을 맞

신안군이 우리나라 대표
수산물 홍어를 소재로 흑산도 홍어축제
를 개최한다.

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대표 관광
지인 흑산도 예리항에서 오는 5월4일부터
5일까지 이틀간 “2024년 흑산도 홍어
축제”가 개막한다.

이번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, 만
선기원 풍어제, 홍어잡이 어선 해상 퍼

아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부
대 행사도 준비돼 있다.

흑산홍어는 육질이 찰지며 부드럽고
담을 삭이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, 천식,
소화 기능 개선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
져 있으며, 흑산도 인근 해역은 홍어 서
식·산란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춰,
이곳에서 생산되는 흑산홍어는 타지역



신안군이 흑산도 예리항에서 5월4~5일 이틀간 '2024년 흑산도 홍어 축제'를 개최한다. 사진은 홍어 직판장에서 홍어 경매를 하는 모습. <신안군 제공>

어는 홍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남도의
진미(珍味)로 평가된다.

신안군은 흑산홍어의 명품화를 위해
지난 2020년부터 ‘흑산 홍어 썰기 학교’(1
~4기)를 운영, 32명이 홍어 썰기 자격증
을 취득했으며, 수입홍어, 타지역 홍어
와의 차별화를 위해 QR코드를 부착한
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흑산홍

어를 구매할 수 있는체계를 구축했다.

특히 지난 2021년 국가중요어업유산
으로 지정된 흑산홍어잡이 어업은 전통
어업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2022년부터
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홍어 전시관 건
립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박우량 군수는 “흑산홍어의 본고장
에서 남도의 참맛과 뛰어난 경관을 함

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로, 지역 상권
활성화는 물론 폭 넓은 흑산홍어 홍보
를 통해 지역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으
로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신안군에는 흑산홍어잡이 어선
22척이 60t의 TAC 물량을 확보해 조업
중이며, 연간 6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
고 있다.

/신안=양홍 기자

목포지역, 道 의대 설립 공모 방식 후폭풍

목포문화연대·상의 등 목포 의대 설립 촉구 성명서 잇따라

전남도가 의과대학 설립을 공모로
추진하겠다는 발표 이후 목포지역에서
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.

21일 목포지역 등에 따르면 문화, 경
제, 사회,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
각계각층에서 전남도의 의대 설립 공
모 방식 철회와 목포대 의대 신설을 촉
구하는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.

목포문화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
통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 의과
대학 설립과 관련해 즉시 손을 떼라고
촉구했다.

목포문화연대는 “고등교육법과 의료
법, 보건의료 기본법 등 관계 법령 절차

에 따라 의과대학이 설립하도록 법령화
돼 있어 의대 정원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
부에 있는 상황”이라며 “관련 법령에 따
르면 전남지사의 의대 설립과 관련 어떠
한 권한을 찾아볼 수 없다”고 설명했다.

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지역 상
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 의
대 설립 공모 추진을 한목소리로 성토
하며 목포대 의대 유치를 강력히 주장
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.

이날 결의대회는 정현택 목포상공회
의소 회장으로부터 결의대회를 갖게
된 취지 설명과 결의문 낭독, 구호 제창
순으로 진행됐으며, 참석자들은 지난 3

4년간 의대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과
전남 서부권의 낙후된 지역 의료 서비
스의 질 향상, 지역민의 생명권, 건강권
을 지키기 위해 목포대 의대 유치는 절
실하다고 입을 모았다.

목포시의회 의대유치 특별위원회와
기획복지위원회는 최근 목포시로부터
의대 유치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목포
대 의대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.

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통합의대에
서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갑작스럽
게 바뀐 배경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목
포 뿐만 아니라 전남 서부권 지역민들
이 느꼈을 배신감을 토로했다.

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은 “정부의
지역의료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경증부

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
사는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
공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
마련”이라며 “서부권은 동부권에 비해
중증 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많고, 이송
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심각한
상황으로, 의대 설립은 의료 취약지에
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수적”이라고 목
포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토로했다.

이 밖에도 목포 YWCA, 대한노인회
목포시지회,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
남지부 목포지회, 목포시주민자치위원
장협의회 등이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
진에 반발하며 목포대 의과 대학 신설
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

/목포=정해선 기자



HD현대삼호 “중대재해 근절 앞장”

지역 주요 조선사 등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

HD현대삼호가 고용노동부 목포지
청을 비롯한 지역 주요 조선사 등과 협
력에 지역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근
절에 앞장서고 있다.

21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지난 18
일 회사와 대불산단 DHMC 정문에서
신현대 사장과 박철준 고용노동부 목
포지청장, 산단 내 조선업 대표 등 관계
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‘민관 합동 안전
캠페인’을 실시했다.

《사진》
행사 참가자들은 퇴근길 근로자들에
게 ‘가족 사랑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’
라는 슬로건이 적힌 핸드크림을 나눠
주며, 가족을 위한 표준 작업과 안전 실
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특히 산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
사고 예방을 위해 ▲자전거 운행 시 헬
멧 착용 ▲일몰·야간 운행 시 전조등

켜기 ▲기타 여러 안전 문구가 적힌 피
켓과 현수막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
의식 고취에 나섰다.

HD현대삼호는 고용노동부 목포지
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
본부, 대불산단 기업들과 함께 ‘조선업
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포럼’도 운영하
고 있다. 이달 초 출범을 알린 상생포럼
은 산단 내 각 안전보건 주체들이 소통
과 공유, 협력을 통해 조선업 중대재해
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.

HD현대삼호 관계자는 “관리 체계가
잘 정착돼 있는 모기업의 안전보건 역
량을 지역 여러 협력사들에게 전파해
조선업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근절하
는 계기를 마련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
개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/영암=나동호 기자

한빛원자력본부-한울원자력본부, 고향사랑기부 자매결연

연말까지 상호 기탁 진행

한빛원자력본부(주) 본사에서 한울원자력본
부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탁 자매결
연을 체결했다”고 21일 밝혔다. 《사진》
이번 자매결연은 고향사랑기부제의
주소지 기부 제한을 극복함으로써 영
광과 울진지역 자원 마련과 경제 활성
화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.

최현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“자매결
연을 통해 양 본부에 발취될 시너지가
정말 기대된다”며 “각 지역을 대표하는
기업인 한빛·한울본부가 적극적인 소통



과 벤치마킹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
고 받길 바란다”고 기대감을 내비쳤다.

한편, 한빛원자력본부는 고향사랑기
부제 담례품 전시·홍보 부스 운영 등
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직원들의 적극

적인 기부 참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
하고 있다. 한울원자력본부와 함께하
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탁 자매결연
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
다.

/영광=김동규 기자

‘맛뚝무안물’ 오픈

무안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
첫 구매 시 전품목 20%할인

무안군은 21일 “공식 농특산물 소
품몰 ‘맛뚝무안물’이 22일 문을 열고 다
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”고 밝혔다.

오픈 이벤트로 ▲신규 가입 후 첫 구
매 시 20% 할인쿠폰 (최대 2만원) 지급
▲햇양과 할인전 ▲카카오톡 친구 추
가 시 적립금을 지급 ▲롤렛 추첨 이벤
트 ▲상품 후기 작성 시 적립금 증정 등
풍성한 혜택을 만날 수 있다.

네이버, 카카오 간편 로그인 서비스
를 통해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쇼핑을
시작할 수 있으며, 전남도 소품몰 ‘남도
장터’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
있다. 또한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
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간편결제 서
비스도 지원한다.

맛뚝무안물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
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연결하는 유통
체계를 제공하고, 판로 확대를 통해 생
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
위해 기획한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소
품몰이다.

군은 현재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지
역 60여개 농·업체를 모집해 100여개
판매 상품을 구축했다. 또 연중 수시로
입점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.

입점 자격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
고 관내에서 농산물, 수산물, 축산물 등
을 재배·생산·가공하는 생산자와 판매
자로, 입점 가능 품목은 무안군에서 생
산된 농특산물과 군내에서 생산되는
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다.

/무안=김상호 기자

해남 팥밭관광지, 100억 투입...체류형 시설로 새단장

향토나라테마촌·오토캠핑장 리폼

해남군이 팥밭관광지 리모델링 사업
에 본격 착수한다.

21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시
작, 팥밭마을 일원 팥밭관광지에 대한
관광인프라 개선사업인 ‘팥밭관광지
리폼사업’(조감도)을 이날 착공한다.

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을 통해 총
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
지역 관광의 인프라를 혁신하고, 관광객
만족 프로그램을 발굴해 노후화된 팥밭
관광지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.

한반도의 시작점인 팥밭관광지는 매
년 8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
의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시설이 노후화
되고, 체험형 프로그램이 부족해 리뉴



얼이 필요한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.

이번 사업은 팥밭관광지의 대표 속
박·휴양시설인 팥밭향토나라테마촌과
오토캠핑장의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
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, 노후
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휴양

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.

새로운 시설로는 카리반존과 물놀이
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가족 단위나 단
체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
충할 계획으로 2025년 3월까지 완료할
예정이다.

/해남=박필용 기자



함평군,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추진

95억 투입 55세대 조성...11월 준공 목표

함평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해보 농
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에 박
차를 가하고 있다. 《조감도》

함평군은 21일 “지방소멸 대응을 위
해 계획한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 주
택단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
있다”고 밝혔다.

함평군은 해보면 산내리 408번지 일
원에 사업비 95억원을 투입, 9만8천914
㎡ 부지에 55세대 주거 용지와 농지 4필
지, 텃밭 17필지 등을 조성 중이다.

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는 지난
2021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, 지난

해 대지조성사업 승인 및 실시설계 완
료 후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공사 착수
에 돌입했다.

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
진 중이며, 공정률 80%에 맞춰 8월 중
주거 용지와 농업 용지 등 우선 분양을
추진할 예정이다.

해보 농토피아는 광주시와 차량으로
15분 거리로 인근에 용천사 관광단지
등이 조성돼 있으며, 국도 22호선·23호
선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도 좋아 매력
적인 주거 입지 여건을 갖춘 곳으로 평
가 받고 있다.

/함평=김연수 기자